

배추 가격 하락세 뚜렷

- 배추 가격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김장 성수기에는 더욱 안정될 전망
- 배추 품질도 좋아져 상품성 높은 배추 출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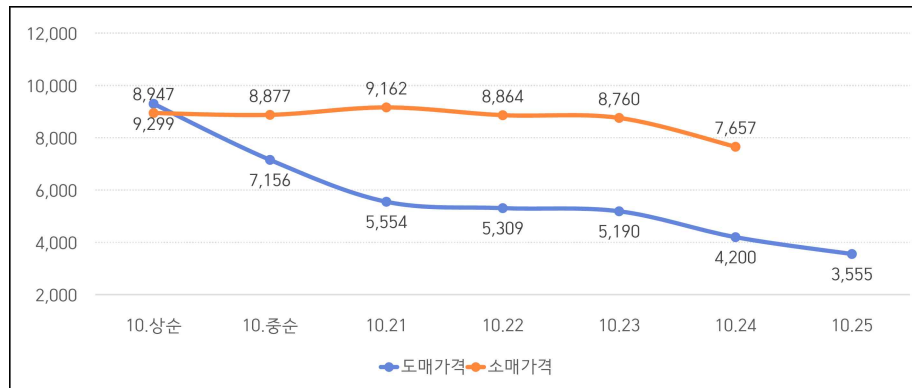
본격적인 김장 시즌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는 8월 초부터 추석 이후인 9월 중순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해발 600m 이상에서 재배하는 여름배추와 전국에서 재배하는 가을배추의 초기 생육이 부진해 가격이 전·평년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김장철 배추 가격에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10월 들어 배추 생육에 적합한 기온이 유지되고, 농업인들의 생육 관리 노력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더해져 가을배추의 작황은 호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하순부터는 배추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0월 상순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배추 1포기당 9,299원이었으나, 하순(10.21.~10.25. 평균)에는 포기당 4,761원으로 2배가량 낮아졌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김장이 시작되는 11월 이후에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4년 10월 배추 도·소매 가격 동향〉



특히, 10월 중순까지 출하된 여름배추의 결구*가 부진해 상품성도 낮았으나, 최근 출하되는 가을배추는 속이 짙 찬 상품성 높은 배추의 출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 결구: 배추 등 채소류 잎이 여러겹 겹쳐 속이 차는 현상

다만, 도매가격 하락세가 소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10월 24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조사한 소매가격 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은 포기당 6,733원인 반면, 전통시장은 9,448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40% 가량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가격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우 ‘배추가 비싸다’는 소비자 인식이 강해 가격을 높게 표시한 후 실제로는 ‘에누리’하는 것처럼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소비자는 표시된 가격만 보지 말고 실제 판매가를 물어보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매가격 하락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배추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김장성수기에는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